

# ‘제2 이루다 사태’ 방지... AI 기업 인증제도 속속 도입

한국표준협회, ‘AI+ 인증’ 개발  
국제표준에 AI특성 결합 품질평가  
신한카드·삼성전자 등 인증 부여

인공지능(AI) 기업 인증  
78개사 ‘테크’, 42개사 ‘비즈’ 인증

인공지능(AI) 기업의 서비스나 제품의 품질을 인증해주는 AI 인증 제도가 속속 도입되고 있다.

한국표준협회는 와이즈스톤과 공동으로 AI 품질인증 제도를 시작해 국내 굴지의 대기업 제품 및 서비스에 AI+ 인증을 부여했으며, 한국인공지능협회도 AI 사업과 기술에 대해 인증하는 2가지 종류의 AI 산업인증을 시행해 100개 이상의 기업에 인증을 제공했다. 또 한국인공지능윤리협회도 AI 윤리 인증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준비 절차에 착수했다.

AI·데이터 전문기업이 500여개에 달하고 대다수가 스타트업이어서 AI 기업 인증에 대한 필요성이 속속 대두되고 있으며, ‘이루다’ 사태로 AI 서비스 개발업체들이 AI 윤리를 서비스에 적용했는지 인증해야 한다는 주장도 커지고 있다. 특히, 내로라할 만한 대기업들



위미영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 전무(사진 왼쪽)가 지난 1월 개최된 AI+인증 수여식에서 이상진 한국표준협회장에게 인증서를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

은 물론 스타트업들도 AI 인증을 획득하면서, AI 인증 제도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이며 인증을 받는 기업수도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표준협회는 와이즈스톤과 공동으로 ‘AI+(에이아이플러스) 인증’을 개발, 지난해 7월부터 인증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최근 신한카드와 삼성전자의 제품과 서비스에 인증을 부여했다.

AI+인증은 AI 품질 인증 제도로, 국제표준 ISO/IEC 25023과 AI 특성을 결합한 품질평가모델에 의거해 AI 기술이 적용된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을 증명하는 제도이다.

신한카드는 AI 상담 서비스 챗봇과

초개인화 플랫폼 서비스에 대해 금융권 최초로 AI+인증 획득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1월 AI 기술이 적용된 생활가전 제품에 대해 AI+ 인증을 받았다. 삼성전자가 인증받은 제품은 로봇청소기 ‘제트봇 AI’, ‘비스포크 패밀리허브’ 냉장고, ‘그랑데 AI’ 세탁·건조기, 무풍 에어컨 겔러리·벽걸이와이드 등 총 6개 품목이다.

AI+ 인증은 제조, 자동차, 의료, 물류 등 전 산업군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 산업군에 활용되는 AI 기반 제품에 대해 인증 시험과 현장 평가 등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인증을 부여한다.

한국인공지능협회는 ‘AI-테크’와 ‘AI-비즈’ 인증제를 지난 2019년 1월



한국인공지능협회가 부여하고 있는 ‘AI 테크’ 인증과 ‘AI 비즈’ 인증 마크. /한국인공지능협회

첫 도입해 많은 AI 전문기업들에게 AI 인증을 부여했다. AI 테크 인증은 AI 개발을 위한 기술 전반에 대한 절차 검토 등을 통해 인증을 부여하며, AI 비즈 인증은 AI를 도입한 기업에 대해 검증해 인증을 제공하고 있다.

협회는 현재 78개사가 AI 테크 인증을, 42개사가 AI 비즈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또 협회는 AI 윤리인증인 ‘소셜 AI’ 인증을 하반기에 새롭게 시행할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전세계적으로 기업에 대한 사회적 의무와 환경에 대한 책임, 기업지배구조 투명성을 강조하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지표가 중요해졌다. 이 시점에서 AI도 보다 인간의, 인간을 위한, 인간에 의한, 인간친화적인 기술에 대한 요구사항도 늘고 있다”며 “이에 따라 AI 윤리 준칙들을 도입하고, AI 기업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는데, 협회는 건설적인 AI 생

태계를 만들고자 이에 부응하는 인증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인공지능윤리협회(KAIEA)는 현재 AI 윤리 인증을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 중이다.

전문가 위원회에는 AI 기술 전문가, AI 윤리 전문가, AI 기업인, 교수, 교사, 변리사, 변호사 등 학계, 산업계, 법조계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게 된다. 올해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하고 주요 AI 윤리 인증 분야를 선정해 각 분야별 AI 윤리 알고리즘과 AI 윤리 인증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계획이다.

전장배 한국인공지능윤리협회 이사장은 “협회는 국내 AI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현재 협회가 참여하고 있는 UN 글로벌디지털협력보고서 부문, MOU(업무협약) 관계에 있는 캐나다 국제연구기관인 캐나다아시아태평양재단(A-PFC), 국제표준화기구(ISO) 등과 함께 글로벌 AI 윤리 인증 체계를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내 AI 기업들이 협회의 AI 윤리 인증을 받게 되면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인증을 받게 돼 해외 진출과 AI 제품의 해외 수출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채윤정 AI전문기자 echo@metroseoul.co.kr

## 포스코케미칼, 美 얼티엄셀즈에 음극재 공급

독자개발한 전기차 배터리 소재  
천연·인조흑연계 한계 극복 성공  
안정성·수명·속도 등 성능 높여

포스코케미칼이 전기차 배터리의 수명을 늘리고 급속충전을 돕는 음극재를 독자 개발해 미국 얼티엄셀즈에 공급한다.

포스코케미칼은 5일 GM과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에 합작 설립한 배터리사 ‘얼티엄셀즈’(Ultium Cells LLC)의 생산 시점에 맞춰 전기차 배터리용 음극재를 공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양극재 공급사 선정에 이은 것으로, 포스코케미칼은 얼티엄셀즈에 배터리의 양대 핵심소재인 양·음극재를 공급하게 된다.

이를 통해 포스코케미칼은 음극재를 미국에 공급해 세계 4위(11%) 수준인 글로벌 점유율을 더욱 높이고 시장 지

위를 강화하게 된다. 얼티엄셀즈는 고품질의 배터리 핵심소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포스코케미칼이 얼티엄셀즈에 공급하는 제품은 독자 개발한 저팽창 음극재다. 전기차 배터리에 꼭 필요한 안정성, 수명, 충전속도 성능을 크게 높이면서 가격은 낮출 수 있는 소재다.

현재 배터리사들이 활용하는 음극재는 원료에 따라 천연흑연계와 인조흑연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포스코케미칼은 두 제품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고 장점은 함께 살릴 수 있는 소재 개발에 성공했다.

일반적으로 천연흑연 음극재는 입자가 층을 이뤘던 판상형 구조다. 에너지 저장 용량에는 강점이 있으나, 충전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팽창으로 인한 구조변화가 일어나 수명이 짧아 지는 것이 단점으로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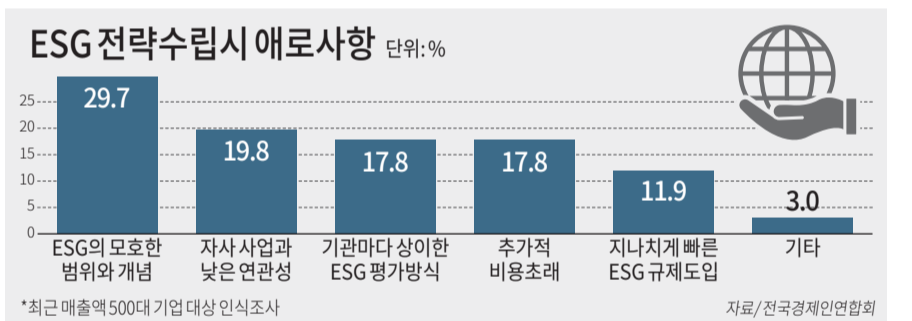
그러나 인조흑연 음극재는 고온에서

제조해 안정성이 높고, 구형의 입자가 균일하게 배열된 등방형 구조다. 리튬이온의 이동 속도를 높여 충전 효율에 강점이 있으나 원료와 공정상의 이유로 생산 원가가 높아지는 한계점이 있었다.

이에 포스코케미칼은 천연흑연을 원료로 활용해 가격을 낮추는 한편, 팽창 방지를 위한 소재 구조 개선 공정을 적용해 인조흑연과 같은 수준으로 수명을 늘리고 충전 속도를 높인 저팽창 음극재의 개발과 양산을 추진해 왔다.

포스코케미칼은 독자 개발한 저팽창 음극재를 활용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 시장 공략을 가속화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단계적으로 증설하고 있는 세종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할 예정이며 향후 얼티엄셀즈를 포함한 국내외 배터리사로의 공급 확대에도 나설 방침이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 매출 500대 기업 66% “ESG 관심있다”

전경련, ESG 준비·인식조사  
31.7% “구체적 연간목표 수립”  
모호한 범위·개념에 전략 애로

매출 500대 기업 최고경영자(CEO) 3명 중 2명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개념이 모호하고 기관마다 평가방식이 달라 기업들이 ESG 관련 경영전략 수립에 고민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최근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ESG 준비실태 및 인식조사’ 결과, ESG에 대한 최고경영진의 관심도는 66.3%(매우 높다 36.6%·다소 높다 29.7%)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고 5일 밝혔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석유화학·제품, 철강, 반도체, 일반기계·선박, 디스플레이·무선통신기기, 건설, 숙박·음식업 등에서 관심이 높았다.

관련 경영전략 수립에 있어 애로요인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9.7%가 ‘ESG의 모호한 범위와 개념’을 꼽았다.

기타 애로요인으로는 ▲자사 사업과 낮은 연관성(19.8%) ▲기관마다 상이한 ESG 평가방식(17.8%) ▲추가비용

초래(17.8%) ▲지나치게 빠른 ESG 규제도입 속도(11.9%) 등이 지적됐다.

ESG 경영의 구체적인 연간목표 수립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31.7%가 ‘수립했다’, 39.6%는 ‘수립계획이 있다’고 응답해 열 곳 중 열 곳 목표 설정했거나 할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반도체와 석유화학업종은 모든 응답 기업이 이미 수립을 완료했거나 수립 예정이라고 답했다.

관련 전담 조직 설치에도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ESG 위원회 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45.5%가 설치(17.8%)했거나 할 예정(27.7%)이라고 응답했다. 위원회 구성원의 경력은 전직 기업인(24.1%), 회계 전문가(20.7%), 교수(13.8%), 전직 관료(6.9%) 등의 순이었다.

별도 ESG 전담조직이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도 응답기업의 절반가량인 53.5%가 이미 마련(23.8%)했거나 마련할 계획이 있다(29.7%)고 답했다.

다만 관련 전문인력 채용계획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8.9%만 채용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건설, 디스플레이·무선통신기기, 반도체, 도소매업 일부 기업에서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성운 기자 ysw@

## 수출 어려움 겪는 중소기업 위해 베테랑 나선다

무역협회 무역현장 자문위 간담회  
구자열 “수출활력 회복에 힘써 주길”

전국에서 수출기업을 지원 중인 무역협회 무역현장 자문위원들이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활력 회복을 위해 한 자리에 뭉쳤다.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은 5일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무역현장 자문위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위원들이 중소

기업의 수출과 무역 애로의 해결사가 돼 주기를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구 회장과 지역별 대표 자문위원 14명이 참석해 수출지원 성공 경험과 현장 애로 해소 사례를 공유했다. 협회의 무역현장 자문위원은 30여년간 수출현장을 누빈 베테랑들로 총 70명이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다.

구 회장은 “코로나19 이후 세계 경제는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과 글로벌 벨

류체인의 변화가 가속하고 있다”며 “대전환의 기로에서 우리 기업들이 기술혁신과 패러다임 시프트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출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문위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수십 년간 세계 곳곳의 무역현장에서 쌓은 수출 노하우와 해외 마케팅 경험을 살려 우리 기업들의 수출활력 회복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양성운 기자